마음 가는 대로 읽는 365구절 명구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명구 365(전 2권)

글 무비 스님/그림 양태숙/불광 펴냄
5만원(세트)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흔히 '팔만 사천 법문'이라 불리는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꾸준히 배우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모두 읽으려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다 알려면 길고긴 시간이 필요하다.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전 2권)〉는 방대한 불교 문헌 가운데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365구절의 명구를 하루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록된 구절들은 〈금강경〉이나 〈화엄경〉 같은 유명한 경전부터, 〈금강경오가해〉 같은 경전 해설서, 〈임제록〉이나 〈육조단경〉 같은 선어록 등 다양한 문헌에서 가려 뽑았다. 여기에 무비 스님이 출처가 되는 문헌에 대한 설명과 구절에 담긴 뜻, 유래 등의 해설을 덧붙여 혹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이라도 그 뜻을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책은 그동안 절판돼 전자책 혹은 중고 책으로 접해 볼 수밖에 없던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시리즈'의 글 가운데 365가지를 뽑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하나 날짜를 붙여 하루 하나씩 읽을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또한 검은 먹으로 표현한 그림을 수록하였던 이전의 시리즈와는 달리, 만물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섬세하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한 그림 47여 컷을 컬러로 실어 잠시나마 눈과 마음을 쉬어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책속 명구를 한 구절씩 읽다 보면 어지러운 마음을 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어느새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불가에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삶을 꾸려 나가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나 다름없다. 그래서 하루에 명구 하나씩 읽으며 어지러운 마음을 비춰보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고자 하는 독자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이 가진 강점은 무비 스님이 경전과 선어록을 공부하며 명구라고 여겨지는 것은 옮겨 적어 외우며, 오래도록 곱씹은 내용을 드러낸 결과물이기에 더욱 감동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명구 100선 시리즈 중 365개 선별
저자, 출가 계기 통해 각 명구 모아
감각적 표현 그림 47여 컷 실어

무비 스님이 명구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출가하게 된 계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스님이 출가를 결심한 것은 〈자경문〉의 "삼일수심천재보(三日修心千載寶) 백년탐물일조진(百年貪物一朝塵)"이란 구절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이웃 사찰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또래의 동자 스님이 이 구절을 읊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감동해 자신도 이런 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출가할 마음을 낸 것이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스님은 출가 후 경전과 해설서, 선어록을 공부하다가 명구라 여겨진 것은 옮겨 적어 외우고 버리고, 하는 일을 수십 년간 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또 다시 선별해 모은 것이 바로 이 책에 수록된 명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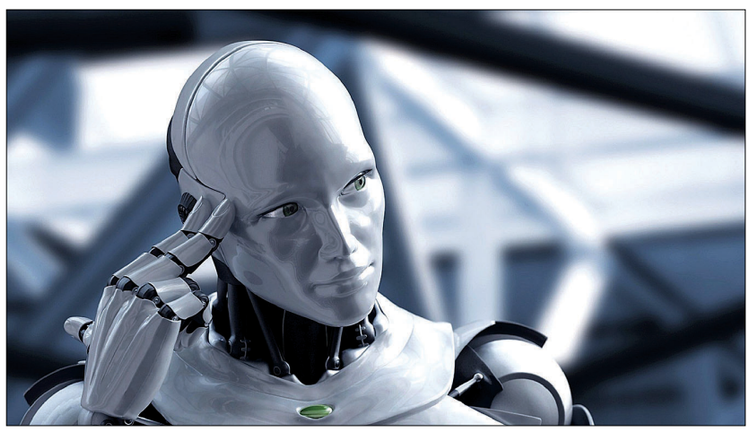
이 가운데에는 불법을 담은 구절들도 많지만, 불교를 알든 모르든, 가슴을 찡하게 울릴 만한 구절들도 많다. 효심이 지극한 진묵 일옥 스님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쓴 제문, 그리고 어느 노스님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출가자의 처지를 돌아보며 병든 스님을 돌보라는 부탁을 담아 영암산 석벽에 새긴 글 등이 그 예이다. 이런 구절들은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머리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읽고 느끼는 것이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읽는 팁일 것 같다.

의식의 발현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초인공지능과의 대화

지승도 지음/자유문고 펴냄/1만 7천원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넘어선 존재가 연구, 준비중이다. 소위 초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존재다. 4차산업혁명의 정점은 바로 이 초지능에 있다. 4차산업혁명을 대변하는 키워드는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등 소위 3초(超)이지만, 실제로는 초지능 하나에 다 포섭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체 초지능이란 무엇인가? 저자는 의식의 발현에 초점을 맞춘다. 각종 인공지능 이론들을 중심축으로 뇌과학, 인지과학, 복잡계과학, 심리학, 양자역학 등 관련 이론과 개념들을 융합하며 인공지능과 의식과의 접점을 모색한다. 의식의 발현은 이들이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도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 즉 자아와 주체성을 갖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인간과 유사한 존재이다. 그것도 여러 측면에서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과연 의식의 발현은 가능할 것일까? 가능하다면 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만약 의식을 가진 인공 존재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인간처럼 자아에 대한 기쁨과 슬픔, 나아가 사랑과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한 존재가 겪게 될 의식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새로운 존재의 탄생으로 인간이 겪게 될 혼란은 무엇일까? 인간과 이들이 겪게 될 갈등은 무엇이고, 과연 양자는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을까 등등. 이 책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성찰을 담아낸다.

이 책의 장점 중 하나는 대화 형식의 구성에 있다. 초인공지능(의식이 발현된 인공 존재)과 인간이 마주앉아 편안히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기 때문에 주제에 비해 읽어나가는 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마치 내가 대화의 한 당사자가 되어 인공존재와 교감하고 있는 듯 느껴질 것이다. 이 책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자유로운 상상력이다. 저자는 다양한 첨단 인공지능 이론을 동원하지만, 굳이 학문적으로 정밀한 체계를 잡고 이에 따른 과학적 증명이나 논리를 전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상과학 소설에 가까울 정도로 쉽고 편하게 여러 주제를 넘나든다. 한편, 이 책은 초인공지능의 문제, 미래과학을 다루고 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다양한 철학적, 종교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존재의 문제에까지 성찰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김주일 기자

새로나온 책

지관(止觀) 등 선의 수지법문 요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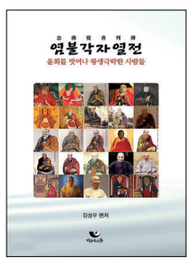


안반수의경

석법성 역주
안세고 한역
운주사 펴냄
1만 4800원

이 책은 불교 수행법의 근본이 되는 지관수행의 한 방법인 호흡법을 담은 〈안반수의경〉과 지관쌍수의 수행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도지경〉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주석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다. 특히 이 두 경은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으로 원문의 직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역자의 적절한 의역과 보완설명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또 다른 경전인 〈도지경(道地經)〉은 〈안반수의경〉과 마찬가지로 지관(止觀) 등 선의 수지법문(修持法門)에 대한 간략한 요지로서, 유가 관행의 대요(大要)를 7장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반수의에 의한 지관쌍수의 실수법(實修法)"이란 이름으로 역자의 자세한 해설이 부록으로 추가돼 있다. 이 책은 선수행을 행하는 이라면 누구든 기본적으로 꼭 공부해야 할 선경(禪經)인 〈불설대안반수의경〉과 〈도지경〉을 원문번역, 역주, 해설과 함께 자세히 풀어 놓아 선정 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승 · 대덕의 일화와 염불 구도행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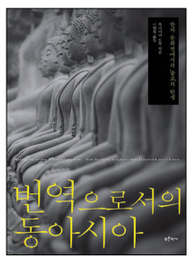


염불각자열전

김성우 지음
비움과 소통 펴냄
1만 3800원

부처님께서는 염불이 범부중생에게는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파악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말법시대에 꼭 필요한 대안으로 미리 설해놓았으니, 그 대기 법문이 바로 불력수행이다. 이른바 이행도에 해당하는 정토종 또는 정종, 연종으로 불리는 염불수행문이 바로 그것이다. 염불은 부처님의 한평생 교화의 정화이자 '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 중의 지름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염불의 최고 장점은 업장을 소멸시키지 않고도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일단 극락에 왕생하면 다시는 퇴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염불은 '성불로 가는 최고의 방편'이라 할만하다. 탐진치 삼독을 전혀 없애지 못해도, 또 일심불란이나 염불삼매에 들지 못해도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또 오역죄를 지은 극악한 죄인도 임종 시 한 번, 또는 십념의 염불로 극락에 왕생할 수 있으니 이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원력 덕분이다.

불교는 어떻게 '탄생' 했는가



번역으로서의 동아시아

후나야마 도루 지음
이향철 옮김
푸른역사 펴냄
2만 5천원

이 책은 불교 경전의 한역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책으로, 불전 번역의 역사를 다룬 개설서이다. 번역자와 번역론, 과정과 방법, 위경(僞經)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 · 분석하였다. 불전 한역의 역사를 구역(舊譯)과 신역(新譯)으로 나누는 등 불전 한역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짚는 것은 물론 역어(譯語) 성립 과정, 불전 한역이 한자어에 미친 영향 등 '문화번역'의 영역까지 다뤘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문화를 구성하는 주축의 하나로서 불전 번역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 학생, 기타 불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불교가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정치 · 문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그 수용과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체로 불교사 연구의 초점은 대체로 정권과의 관계에 맞춰진 감이 있었다. 지은이는 온전히 불교의 핵심인 불전의 번역을 파헤쳐 불교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親友書서 친우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윤회와 인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국판 / 200쪽 / 값 10,0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전 중 가장 오래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박이오 역 / 신국판 양장 / 368쪽 / 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